



서울역사구술자료집 ④

# 사대문 안 학교들

강남으로  
가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라는 말이 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이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혜, 지식이 모두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들과 함께 우리 역사의 한 장도 닫혀 지고 있다. 여기에 구술 채록의 당위성과 긴박함이 있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83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1975년 이후 도심 안에 있던 18개교의 학교가 이전하고, 17개교도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을 정도로 도심학교들의 ‘도심 대탈출’이라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서울시가 개발하고 있던 영동·잠실·송파·목동·노원 등의 개발사업지구로 옮겨갔다. 도심학교들의 ‘도심 탈출’의 원인 및 도시개발과의 관련성 파악이 본 구술집의 문제의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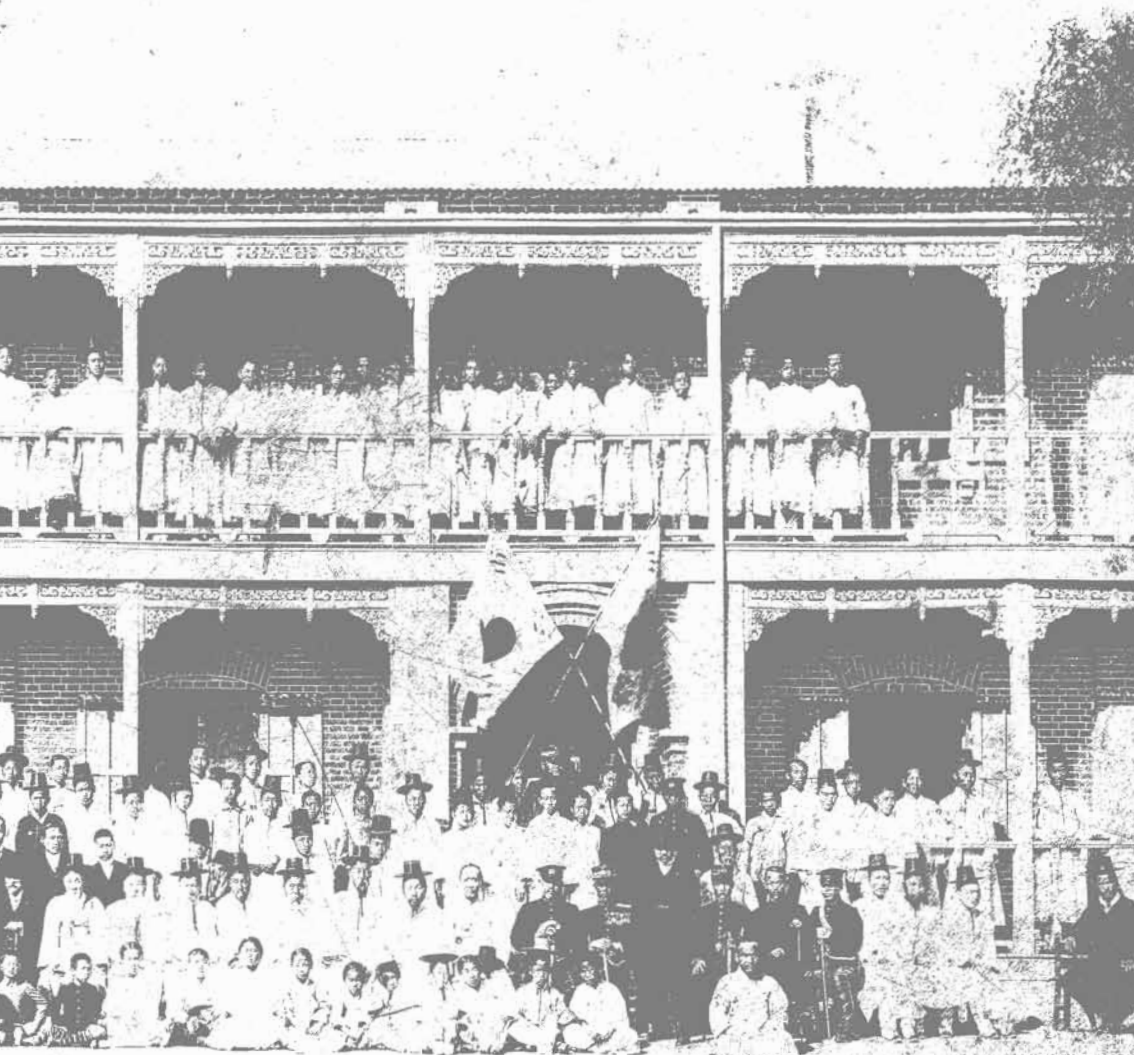


9 788994 033426  
ISBN 978-89-94033-42-6

값 5,000원

사대문 안 학교들

강남으로  
가다



---

## 서 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민과 관료들의 다양한 서울체험과 기억을 채록·정리하는 구술자료 수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토박이의 사대문 안 기억』, 『서울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었다』 그리고 『서울 사람이 겪은 해방과 전쟁』 등 3권의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을 간행하였습니다. 올해 4번째의 결과물인 『사대문 안 학교들, 강남으로 가다』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술자료집은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딱딱하거나 지루한 주제라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들의 말로 들을 때는 생생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역사가가 아닌 여러분이 역사 기록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술자료집을 통해 서울시민들은 서울의 역사를 함께 구성하는 ‘사료의 민주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시민들이 지배층들의 전유물이었던 과거의 재현 과정에 당당하게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

---

한 개인의 삶은 주관성을 띠게 마련이며, 그것을 재현해 낼 때 일부 왜곡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문헌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자부하는 사료들도 그것을 기록하고 생산하는 주체와 집단에 따라 당파성·계급성·민족성·시대성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역사가들은 엄격한 사료 비판을 거칩니다. 구술도 자료로 활용할 때는 더 엄격하게 검증과 사료 비판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자께서는 구술자가 왜 특정 사안을 그러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구술자가 어느 점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지, 혹은 은폐하는지, 왜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는지, 그 행간에 가려진 목소리를 듣는다면 독자께서는 구술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4권 『사대문 안 학교들, 강남으로 가다』는 1970·1980년대 서울 도심에 있었던 수 많은 학교들이 왜 강남이나

---

---

목동·노원 등 개발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지, 당시의 교사·동창생 및 교육 관료와 행정 관료의 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부문서나 신문에서 읽을 수 없었던 그들만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 수집과 자료집 발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술 채록에 응해 주신 여러 시민들과 면담자들, 자료집을 편집·발간한 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책을 예쁘게 꾸며주신 디자인 공방,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시 문화재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신 형 식

---

---

## 해 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라는 말이 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이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혜·지식이 모두 없어진다는 뜻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징용을 나갔던 분들, 서울의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현장을 지휘한 분들, 또 영등포 방직공장에서 평생 기계와 함께 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우리 역사의 한 장도 닫혀지고 있다. 여기에 구술 채록의 당위성과 긴박함이 있다.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 억압 기제나 정치 이념, 혹은 개인의 성향이나 계급성에 의해 변형·왜곡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기 상반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 구술은 해당 계급·신분·사회·성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전달하는 생생한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사실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검열 기제가 작동하여 그렇게밖에 기억·구술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와 사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정사, 경관변화사, 시민생활사, 그리고 주제사에 관련된 세부 주제들을 선정하여 구술을 채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구술집 『사대문 안 학교들, 강남으로 가다』는 서울시정사와 주제사에 해당된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구술자료집 제2권 『서울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었다』와의 연결선상에서 서울의 도시개발과 교육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983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1975년 이후 도심 안에 있던 18개교의 학교가 이전하고, 17개교도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을 정도로 도심 학교들의 ‘도심 대탈출’이라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서울시가 개발하고 있던 영동·잠실·송파·목동·노원 등의 개발사업지구로 옮겨갔다. ‘도심 탈출’의 원인 분석이 본 구술집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구술집은 도심에서 이전한 이른바 ‘공·사립 명문학교’를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하였다. 그것은 서울시가 명문학교들을 집중 선택하여 이전시키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970년대 세칭 ‘명문학교’라 불렸던 도

---



---

십 공·사립고등학교 중 이전하지 않은 경북·용산·경동·중앙·이화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학교를 구술 채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학교들의 이전 계기와 과정, 그리고 이전 전후의 변화 및 지역 학교로서의 위상 내지 영향 등을 집중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4명의 도시계획 관료, 1명의 교육 관료, 17명의 교사, 3명의 동창생 등 총 25명의 구술자를 2년에 걸쳐, 총 35시간 분량의 구술을 채록하였다. 구술 채록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방일권·권미현 선생, 한국구술사연구소의 윤택림 소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김현숙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구술을 채록한 학교들은 다음과 같다. 경기고·휘문고·정신여고·숙명여고·서울고·배재고·중동고·동덕여고·경기여고·양정고·창덕여고·보성고·진명여고·상명여고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창덕여고의 녹취록은 본 주제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편집에서 제외되었다.

---

---

구술자들은 귀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다. 그러나 본 자료집은 '서울의 도시개발과 학교 이전'이라는 주제로 편집하였기에 그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다 담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아울러 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구술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무리한 인터뷰를 자제함과 동시에 비공개로 요청된 부분은 편집과정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아울러 이 자료집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원고를 집필한 후 각 구술자의 열람과 수정 요구를 모두 반영하였음을 알려둔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구술 채록에 기꺼이 응해주신 구술자분들과 면담자들, 그리고 이 책을 편찬해주신 디자인 공방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2012년 1월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전임연구원 김 현 숙

---

---

# 목 차

## 1장

### 서울의 도시개발과 학교 이야기를 시작하며



- 1. 늘어만 가는 도시문제와 강남 개발계획 016
- 2. 동전의 양면, 강북 억제책과 강남 유인책 020
- 3. 도심 학교를 강남으로 옮겨라! 025

## 2장

### 개발의 질주, 학교 이전의 역동성



- 1. 강남 도시계획과 주민 이주책 032
- 2. 200개 학교 증설계획과 학교 용지 마련 055
- 3. 학교 이전을 주도한 서울시 067
- 4. '도시화와 교육'의 싱크 बैं크, 서울교육연구소 074



I. 정책적으로 이전된 학교들	094
1. 이전의 시범 사례로 선정된 경기고	094
2. 재단 부지로 이전을 강요당한 휘문고	117
3. 세종로사거리로 나간 서울고 학생들	127
4. 미국대사관 요청으로 이전된 경기여고	145
5. 화재로 촉발된 양정고의 이전과 목동 개발	160
6. 송파구 개발에 힘을 실은 보성고	174
7. ‘청와대 옆집’, 진명여고의 애환	187
8. 지역구 의원의 유치 공약 대상이 된 상명여고	203
II. 자발적으로 이전한 학교들	217
1. 도약을 위한 정신여고의 세 번째 이전	217
2. 강남 8학군의 대명사가 된 숙명여고	229
3. 극비리에 진행된 배재고의 이전	242
4. 비좁은 수송동 교사를 떠나 일원동으로 간 중동고	251
5. 동덕여고, 자발적으로 이전을 결정하다	263

## 일러두기

1. 이 자료집은 서울의 도시개발과 도심학교의 강남 이전과 관련된 25명의 구술녹취문 중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하였다.
2. 이 자료집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원고 집필 후 각 구술자의 열람과 확인을 거쳤다.
3. 이 자료집은 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술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자가 윤문하였다. 면담자의 질문은 본문 중 글씨체를 달리하여 표시하였다.
4. 구술 내용 중 구술자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부름·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간투사(감탄사)와 반복되는 단어들은 생략하였다.
5. 서울 및 지방 사투리는 표준어로 고치되, 읽기에 방해되지 않고, 어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
6. 구술 내용 중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를 달아 표기하였다.
7. 본문 중 구술적 성격을 표시하기 위한 편집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 " 구술 내 인용문 표시

( ) 사투리나 잘못된 외래어 등을 표준어로 고친 것. 문맥상 지시어나 설명 표기

... 구술이 중단되어 구술자가 띄엄띄엄 이야기할 때

! 구술에서 감탄할 때 표시

(중략) 구술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이나 앞뒤에서 생략되었을 때